



카타르에 이어 멕시코도 대규모 증산 발표

- ▶ 카타르의 멕시코 투자와 뒤 이은 멕시코의 45% 석유 증산 발표로 유가 급락. 장기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2015년까지 집행된 사상 최대 capex 결과물로 해석됨. 지정학적 요인 없다면 장기 저유가 기조 이어질 것

OPEC 탈퇴한 카타르, 독자적인 유전투자 행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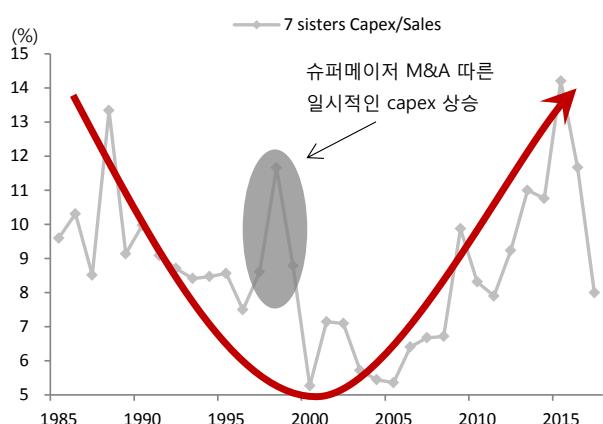
'OPEC 탈퇴 선언' 카타르, 멕시코 유전 투자

카타르 국영 에너지 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에너지(ENI)가 보유한 멕시코 해상 유전 3곳의 지분 35%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QP는 이들 멕시코 유전에서 내년 중반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해 2021년까지 산유량을 하루 최대 9만 배럴까지 증산할 계획이다. 카타르는 내년 1월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탈퇴할 예정이다. (중략) 아울러 QP는 이날 미국의 에너지 분야에 앞으로 수년 안에 최소 200억 달러(약 25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우디의 단교·봉쇄에 맞서 미국에 대한 '보험' 성격의 투자를 통해 미국이 사우디에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하략)

자료 : 연합뉴스(2018년 12월 16일), SK증권

- 얼마 전 OPEC 탈퇴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카타르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해외 신규유전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군요
- 일단 대상은 멕시코입니다. ENI가 보유하고 있는 멕시코 해상 유전 3곳 지분 35%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멕시코 대통령이 같은 시각 국영 석유기업 PEMEX의 생산을 2025년까지 현재 대비 45% 늘리기로(165만b/d → 240만b/d) 결정했다는 발표를 한 것도 이와 연관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늘 현금이 없어 고생하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남아시아 지역의 생산업자들에게는 카타르의 이런 행보가 반가울 수밖에 없죠
-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부분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장기적인 석유 capex 및 공급에 대한 그림입니다

2015년에 사상 최대였던 투자: 차후 지속생산증대로 연결



자료 : Bloomberg, 각 사, SK증권

- SK증권 리서치센터가 장기 저유가를 주장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은, 결국 2015년 경 사상 최대로 집행되었던 capex 수준입니다
- 통상적인 유전의 개발이 7~8년 내외로 상당히 길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15년에 투자가 최대였다면 생산도 2020년을 넘어서서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 바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속속 발표가 된다고 해석됩니다. 4분기 사우디의 대규모 유전 신규가동 시작, 카타르의 42% 가스 증산 발표, 그리고 오늘의 멕시코 45% 증산 발표까지 말이죠
- 단기적인 향방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신규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히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가의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발상이 되는 것이겠죠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